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4. 24.(목) 11:00 < 4.25.(금) 조간 > 배포 2025. 4. 24.(목)

국표원,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 주요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애로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목)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분기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작년 동기간 대비 12% 증가한 역대 최대치(1,334건)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술규제대응국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배종수 (043-870-55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 고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 개요

□ 추진 배경

○ 주요국가의 해외 기술규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청취 및 대응 방향 논의

□ 회의 개요

○ **회 의 명** :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

○ **일시/장소** : '25.4.24(목), 14:00 ~ / 서울 엘타워 2층 비바체홀

○ **참석대상** : 국표원장(주재), 기술규제대응국장, 수출기업 및 전문가 20여명

○ **주요내용** : 무역기술장벽 애로(기업) 및 대응 정책(전문가) 논의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모두 발언	국표원장
14:10~14:25	(15')	[주제발표] 미국 新 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 변화	연세대학교 곽주영 교수
14:25~15:25	(60')	참석자 애로 청취 및 토론	참석자
15:25~15:30	(5')	마무리 발언	국표원장